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병 덕[‡]

허구의 대상인 안나 까레니나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괴물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가? 켄달 월튼과 스테이시 프렌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월튼에 의하면 우리는 허구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또한 허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유사 감정에 불과하다. 또한 프렌드에 의하면 허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실제로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월튼과 프렌드의 논거가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부인하기에 불충분함을 주장한다.

주 제 미학, 언어철학

주요어 허구의 대상, 진정한 감정, 유사 감정, 월튼, 프렌드

1. 과연 우리는 허구의 대상(fictional object)에 대해 진정한 감정(genuine emotion)을 가질 수 있는가? 예컨대, 허구의 대상인 안나 까레

* 접수완료 : 2006. 11. 7 / 심사 및 수정완료 : 2006. 12. 6

† 이 논문의 초고는 제19회 한국철학자대회 분석철학분과(2006년 11월 4일)에서 발표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한승 선생님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 조교수

나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괴물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가? 켄달 월튼(Kendall Walton)과 스테이시 프렌드(Stacie Friend)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월튼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허구라고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단지 ‘유사 감정’(quasi-emotion)에 불과하다. 또한 프렌드에 의하면 허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은 우리의 실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월튼과 프렌드의 이러한 주장들이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부인하기에 불충분함을 주장할 것이다.

2. 월튼(Walton 1990, 1997)은 허구적 담론을 ‘메이크-빌리브’(make-believe)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¹⁾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소설이 말해주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메이크-빌리브할 뿐이다. 예컨대 우리는 설록 홈즈가 탐정이라고 메이크-빌리브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설록 홈즈가 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메이크-빌리브 게임에서 홈즈 스토리의 독자로서 ‘설록 홈즈는 탐정이다’라고 상상하도록 요구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월튼에 따르면, “허구적 참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상상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또는 명령이 있음으로써 성립된다.” (Walton 1990, p. 39.) 달리 말하면, 허구적 참(fictional truth)과 사실적 참(factual truth)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들이 정당화되는 상이한 방식이다. 예컨대, 만일

1) 월튼의 ‘make-believe’ 개념은 통상적으로 ‘믿는 척하기’ 또는 ‘믿는 체하기’로 번역된다. 그런데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 척 연기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메이크-빌리브’로 표기할 것이다.

우리가 ‘좋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다’와 같은 사실 진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이 진술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종의 기원」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실 진술이 옳은지 여부는 사실이 어떠한지에 의해 결정되며, 사실이 어떠한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와 같은 허구 진술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가 필요 없다. 그러한 허구적 참은 단지 셜록 홈즈 스토리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 된다. 소설은 어딘가에 실재하는 어떤 추상 세계에 성립하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창작되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는 작가가 묘사하는 대로 상상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소설에 관련한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라고 메이크-빌리브하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사회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마치 ‘셜록 홈즈가 탐정이다’라고 믿는 척 연기하는 것과는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신의 메이크-빌리브 이론을 토대로 월튼은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감정이 아니라, 단지 ‘유사 감정’(quasi-emotion)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찰즈가 끈끈한 녹색 괴물(green slime)에 대한 매우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난 후 매우 무서웠다고 진지하게 고백했다고 가정해 보자. 월튼에 따르면 이 경우 찰즈가 녹색 괴물에 대해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 그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월튼의 첫 번째 논거는 다음과 같은 ‘존재 원리’에 의거한다.

-
- 2)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 “허구적 이름에 대한 밀주의 이론과 추론주의 의미론”(2006)을 참조할 것.
 - 3) 이 예는 월튼 자신의 예이다. Walton 1990, p. 196을 볼 것.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⁴⁾

그런데 찰즈는 끈끈한 녹색 괴물이 실재하는 괴물이 아니라, 단지 허구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실재한다고 믿지 않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실재한다고 믿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중요한 차이 때문에 진정한 감정은 단지 후자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실재한다고 믿지 않는 허구의 대상에 대해선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윌튼의 보다 중요한 논거는 진정한 감정이 갖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motivating force)이다. 즉 진정한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압박한다. 예컨대, 진정한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며, 진정한 후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압박한다. 그렇지만 찰즈가 경험한 감정은 진정한 공포가 통상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행동 성향과 유리되어 있다. 예컨대, 찰즈는 끈끈한 녹색 괴물을 피하기 위해 극장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윌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은 고유한 방식으로 행동을 유발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고통 속에 있는 인지적 요소에 귀속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려 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행동에 압박을 가한다. … 이와 같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거세된 공포는 결코 진정한 공포가 아니다.” (Walton 1990, pp. 201-202.)

“사람들이 허구의 캐릭터들과 그들의 고난 또는 영웅담이 순수하게 허구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윌리 로만에 대해 진정한 동정심을 느끼고 또

4) 윌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민과 경탄뿐만 아니라 슬픔도 적어도 그들의 대상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유만으로도 감상자들이 윌리 [로만]을 실제로 동정하거나 안나 [까레니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또는 슈퍼맨에 경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Walton 1990, p. 204.)

는 안나 까레니나에 대해 몹시 슬퍼하고 또는 슈퍼맨에 대해 경탄한다는 생각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민은 연민의 대상이 실제로 고난을 겪는다는 믿음(또는 판단)을 포함하고, 경탄은 경탄의 대상이 경탄할만하다는 믿음을 포함하지만, 보통의 감상자는 윌리가 실제로 고난을 겪고, 슈퍼맨이 실제로 경탄할만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bid., p. 203.)

요컨대 윌튼에 의하면, 끈끈한 녹색 괴물에 대한 찰즈의 감정은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메이크-벨리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존재 원리’를 위반하고, 또한 진정한 공포가 갖고 있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찰즈는 끈끈한 녹색 괴물에 대해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참(literally true)일 수 없다. 따라서 윌튼은 찰즈가 느낀 감정은 진정한 공포가 아니라 유사 공포(quasi-fear)라고 주장한다.

3. 우선 허구의 대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하는 윌튼의 첫 번째 논거인 존재 원리를 검토해 보자.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감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원리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유감(regret), 후회(remorse), 또는 향수(nostalgia)와 같은 감정은 많은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⁵⁾ 예컨대 자식을 위해 죽도록 고생만하다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살아생전 효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회한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회한은 그 감정의 주체가

5) 리처드 모랜드 유사한 지적을 한다. “안도, 유감, 후회, 그리고 향수는 감정 반응의 전형적 경우이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과거를 향한(backward-looking) 감정들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퍼즐을 제기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Moran 1994, p. 78.)

회한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감정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회한과 같은 감정 유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론을 피하기 위해 존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약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존재했거나 또는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약화된 형태의 존재 원리도 그다지 설득력 있는 듯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몹시 열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3차 세계대전을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금껏 몹시 열망해왔던 자신을 닮은 자식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매우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반론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원리를 보다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존재했거나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존재 원리를 이렇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감정의 대상을 **상상할 수 있는 것**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둘째, 상상적 상황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가 있는 듯 보인다. 하이슬롭(Hyslop 1986)은 우리가 상상된 상황에 대해 어떤 점에서 마치 사실인 듯 반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자. 영수는 평생을 고생해서 진짜 맘에 드는 집을 샀고, 이 집에 대해 커다란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생생한 상상을 했고,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진정으로 미어지는 감정을 느꼈다. 하이슬롭은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된 상황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물론 상상된 상황에 대해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과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집에 실제로 아무

런 이상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집이 전소되는 상상을 하여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가?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상상을 하고, 또 이런 상상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는 내 집이 불탈 경우 과연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이런 상상을 통해 약간의 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를 미리 상상해 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설을 읽고 소설 속 스토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삶을 확장·보충하길 원할 수 있다.” (Hyslop, p. 296.) 즉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악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감성을 키우기 위해 소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소설을 읽고 상상적 스토리에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월튼 자신도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는지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제시한다.

“실제 삶에서 악한이 승리하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바가 없진 않겠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메이크-빌리브는 그러한 경험을 공짜로 제공해 준다. 허구적으로 재난이 닥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난이 진짜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 허구성과 참의 이러한 차이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아픔과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중요한 경험의 혜택을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다.” (Walton 1990. p. 68.)

따라서 하이슬롭은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진정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며,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굳이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끊임없이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적어도 소설 속 스토리에 빠져 있는 어느 순간 주인공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진정한 연민을 느끼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월튼은 우리가 소설 작품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가 부인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우리가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주장은 찰즈가 진짜 공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녹색 괴물에 공포를 느끼지는 않지만, 그 [공포] 영화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공포감을 그에게 유발할 수 있다. 만일 찰즈가 어린아이라면, 비록 영화 속의 그 녹색 괴물이 실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녹색 괴물 또는 그 영화 속의 괴물과 유사한 기괴하고 무서운 어떤 다른 것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Ibid., p. 202.)

따라서 월튼의 견해에 따르면, 찰즈는 녹색 괴물에 대해선 단지 유사 공포를 느끼지만 다른 어떤 것, 즉 영화 속의 괴물과 유사한 어떤 다른 무서운 것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 진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생각에 의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허구 작품과 관련해 진정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진정한 감정은 허구의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이널(Yanal 1994, p. 57)이 지적하는 것처럼, 뱀파이어가 실재하지 않음을 잘 아는 어른도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서, 드라큘라에 대해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녹색 괴물이나 이와 유사한 그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지 않는 어른도 찰즈와 비슷한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를 보면서 든 어떤 생각—에컨대 영화 속 괴물과 유사한 어떤 다른 무서운 것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 어떤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논쟁의 포인트가 아니다.

윌튼이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부인하는 주된 이유는 직접 지칭 이론(the direct theory of reference) 때문이다. 윌튼은 직접 지칭 이론을 받아들이고 또한 허구의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연루를 원치 않기 때문에, 허구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의미론적 내용을 결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허구의 대상에 대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필자의 필자의 논문 “허구적 이름에 대한 밀주의 이론과 추론주의 의미론”(2006)에서 이 견해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 특히 브랜덤의 이론인 지칭의 대용어 이론(the anaphoric theory of reference)을 받아들이면, 허구의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연루 없이 허구의 이름을 진정한 이름(genuine name)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였다.⁶⁾ 또한 허구의 캐릭터를 실재하는 대상으로 믿음으로써 진정한 감정을 갖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착한 행동을 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음에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갖다 주지 않은 산타크로스를 진정으로 원망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역사 소설에 나온 허구 인물의 영웅담을 실제 역사의 인물로 잘못알고 진정으로 경탄하고 존경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감정의 대상이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감정의 진정성(genuineness)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이제 허구의 대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하는 윌튼의 중심 논거를 고찰해 보자. 윌튼에 의하면, 허구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진정한 감정이 갖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결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찰츠는 끈끈한 녹색 괴물이 매우 무서웠다고 말하지만, 그 괴물을 피하기 위해 극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이 논거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선 먼저 윌튼이 진정한 감정과 유사 감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논문 “허구적 이름에 대한 밀주의 이론과 추론주의 의미론”(2006)을 참조할 것.

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튼에 따르면, 예컨대 ‘공포’란 용어를 어떤 사람 S에 적용하기 위해선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S는 실제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내적 감각을 느껴야 한다. 둘째, S는 또한 그의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단지 첫 번째 조건만 성립한다면 S의 감정은 유사 공포이지 진정한 공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공포와 유사 공포는 첫 번째 조건, 즉 주체의 생리-심리학적 상태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두 번째 조건, 즉 주체가 그의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지 여부의 차이이다.⁷⁾

그렇지만 필자는 단지 두 번째 조건의 차이에 호소해 유사 감정(quasi-emotion)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진정한 감정과 유사 감정을 이처럼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지 여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감정 일반에 대한 주장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감, 후회, 향수와 같은 감정은 많은 경우 감정의 대상이 실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허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에 큰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실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에

7) 월튼은 허구 작품이 실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감정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짜 공포와 월튼이 말하는 유사 공포 사이의 차이는 주체의 생리-심리학적 상태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주체가 그의 감정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 즉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유사 공포는 거짓으로 놀란 척하는 것(pretending to be frightened)과는 구별된다.

전혀 아무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연인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 안나 까레니나를 ‘진정으로 동정하는’ 사람은 현실세계에서 안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인을 가능하면 돕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반면 실재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먼 과거에 존재했거나 또는 격리된 먼 지역에 있는 어떤 실재 대상에 대해 느낀 연민은, 그런 대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없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기준으로 진짜 감정과 유사 감정을 구분하기 어렵다.

물론 통상적인 경우 허구 대상에 대한 감정과 실재 대상에 대한 감정이 동기를 부여하는 힘에 관련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차이는 월튼의 두 번째 조건에서 비롯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찰즈가 실제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내적 감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찰즈는 끈끈한 녹색 괴물이 허구의 대상이고, 따라서 도망치지 않아도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끈끈한 녹색 괴물에 놀라 허겁지겁 극장에서 도망쳤다면 실재 대상과 허구 대상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이로 비웃음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찰즈가 영화 속의 끈끈한 녹색 괴물을 피하기 위해 극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느낀 감정이 유사 공포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끈끈한 녹색 괴물이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논의를 통해 우리는 월튼의 두 번째 논거가 ‘유사-공포’란 새로운 범주를 도입해야만 할 결정적 논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마찬가지로 찰즈가 느낀 생리-심리적 상태가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공포를 느꼈을 때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찰즈가 느낀 감정이 진정한 공포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단지 찰즈가 끈끈한 녹색 괴물이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믿지 않고, 따라서 실재의 대상에 대해 진짜 공포를 느낀 사람이

통상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성향인 도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찰즈가 느낀 감정이 진짜 공포가 아니라 유사 공포라고 보는 월튼의 견해와 이와 달리 찰즈가 느낀 감정을 진짜 공포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는지 이다. 필자는 두 견해 중 후자가 더 설득력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진정한 감정과 유사 감정을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지 여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감정 일반에 대한 주장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하이슬롭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구 상황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셋째, 찰즈는 단지 무서운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내적 감각을 실제로 느꼈다. 따라서 영화를 보고 난 후 녹색 괴물이 매우 무서웠다고 찰즈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연기가 아니라 진지한 것이었다.⁸⁾

넷째, 우리 모두는 평소 허구 작품의 감상자가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미워하고, 또는 사랑한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한다. 또한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느끼는 이런 감정이 실재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라고 기술하지 않는다.⁹⁾

다섯째, 허구의 대상에 대해 ‘공포’와 같은 감정 어휘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봐야 할 좋은 이유가 있다.

이상 다섯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굳이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부정하면서 찰즈가 느낀 감정이 진짜 공포임을 부정할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의 세 가지 이유는 이미 지적된 논점이고, 네 번째는 월튼도 인정하

8) 물론 이 점을 월튼이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다. 주 7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사 공포는 거짓으로 놀란 척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9) 월튼 자신도 이 점을 인정한다. Walton 1997, p. 45를 볼 것.

는 사실이므로, 이제 어떤 이유에서 허구의 대상에 대해 ‘공포’, ‘동정’과 같은 감정 어휘를 우리가 의미론적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영희의 예를 다시 고려해 보자. 영희는 안나 까레니나가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을 진지하게 주장한다.

(1) 나는 안나 까레니나를 동정한다.

그리고 영희가 또한 다음을 진지하게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2) 나는 정희를 동정한다.

그리고 안나와 달리 정희는 영희의 실존하는 친구이며, 영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정희가 안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자. 마이클 더밋의 언어의 두 측면 모델(Michael Dummett's two-aspect model of language)에 따르면, 언어 표현의 사용은 두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그 용어가 옹게 적용되는 상황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적용의 적절한 귀결들이다.¹⁰⁾ 이 모델에 따르면, 영희가 (2)에서 ‘동정한다’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이 두 측면에 달려있다. 우선 영희는 정희가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희가 (2)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정희가 지나친 고통을 겪은 상황은 영희가 (2)를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영희가 그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귀결들을 또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희가 (2)를 주장할 때 의미론의 관점에서

10) 브랜덤(Brandon 1994)은 이 모델을 일반화시켜 추론주의 의미론을 주장한다. 추론주의 의미론에 의하면, 한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의 추론 역할에 의해 주어진다. 필자는 추론주의 의미론이 허구적 용어에 관한 가장 적절한 의미론임을 앞서 언급한 필자의 논문(2006)에서 주장했다.

‘동정한다’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1)을 다시 고려해 보자. 영희는 안나가 지나치게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을 주장한다. 따라서 (1)을 주장하는 영희의 이유는 그녀가 (2)를 주장하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 물론 (1)을 주장하는 그녀의 이유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상상하도록 요구된 것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허구의 캐릭터의 운명은 작가에 의해 구성된 허구적 운명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안나 까레니나의 운명에 대해 동정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톨스토이에 의해 구성된 허구적 운명밖에 없다. 따라서 단지 이 점을 근거로 (1)에서 ‘동정한다’란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영희가 (1)을 진지하게 주장할 때 ‘동정한다’를 일종의 은유적 표현(metaphor)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좋은 이유는 없다. 이 점을 보기 위해 ‘인생은 긴 여행이다’란 은유 문장을 살펴보자. 은유의 한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문장을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하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인생은 긴 여행이다’란 문장은 글자 그대로의 뜻에선 거짓이다. 한 곳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1)에서 사용된 ‘동정한다’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할 때 영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왜곡된다고 볼 좋은 이유는 없다.

이제 위와 같은 언명의 적절한 귀결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월튼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나에 대한 영희의 감정 태도는 그녀가 정희와 같은 실존 인물에 대해 갖는 행동 특성의 일부를 갖고 있지 않다. 예컨대 영희는 안나의 비극을 막지 못한 제에 대해 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1)과 (2)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허구의 대상과 실제의 대상에 대해 갖는 영희의 상이한 믿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허구 대상에 대한 감정과 실제 대상에 대한 감정이 동기를 부여하는 힘에 관련해 갖는 차이는 주체가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 따라서 영희는 안나의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안나가 허구의 캐릭터이며, 또한 허구의

캐릭터의 허구적 운명에 대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에 대한 영희의 언명의 진지성(sincerity)이 영희가 안나의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논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영희가 (1)을 진지하게 주장할 때, 그녀는 이런 종류의 귀결에 대해 공언(commitment)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영희가 보이는 행동이 (1)의 적절한 추론적 귀결들과 (2)의 적절한 추론적 귀결들 사이에서, 허구의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제외하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영희가 단지 안나를 동정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상 영희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위의 논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유비를 통해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어떤 사람 A를 매우 탁월한 탐정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가 직면한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A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이다. 이제 그가 또한 설록 홈즈를 매우 탁월한 탐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그는 그 미스터리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홈즈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그가 진정한 판단이 아니라 ‘유사 판단’(quasi-judgment)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홈즈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허구의 대상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어떤 한 매력적인 여성을 사랑하게 된 남자는 그 여성과의 데이트를 몹시 갈망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남성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해서 그 남성이 그 여성 캐릭터와의 데이트를 몹시 갈망하는 성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도 그가 후자의 경우 진정한 사랑이 아닌 ‘유사 사랑’(quasi-love)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허구의 대상과는 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마찬가지로 허구의 캐릭터에 대한 감정과 실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에 관련해 갖는 차이는, 그 감정이 진정한 감정인지 아니면 유사 감정인지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지 여부

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월튼의 둘째 논거는 (1)에서 ‘동정한다’란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즉 (1)에서 ‘동정한다’란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영희가 (1)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이 주장에서 ‘동정한다’란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굳이 영희가 안나에 대해 진정한 동정의 감정을 느꼈음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5. 지금까지 필자는 월튼의 논점이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부인하기에 불충분함을 주장했다. 프렌드(Friend 2000)는 월튼의 메이크-빌리브 이론을 실존하는 대상에 대한 허구적 상상을 고려함으로써 옹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논거가 과연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월튼의 주장을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프렌드는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철학 교수인 잔 페리(John Perry)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다. 페리는 전혀 농담을 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이다. 그런데 프렌드는 농담을 잘하는 쾌활한 사람을 좋아하지, 농담을 전혀 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은 싫어한다. 따라서 프렌드는 그녀의 상상 속에서 다음 문장 (3)을 받아들인다.

(3) 나는 잔 페리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잔 페리는 전혀 농담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프렌드는 (3)을 ‘태도 보고’(the Attitude Report)라고 부르고, (4)를 ‘이유 보고’(the Reason Report)라 부른다. 그런데 잔 페리는 실제로는

농담을 잘 하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런 이유로 프렌드는 실제로 페리를 좋아한다. 따라서 (4)는 프렌드가 실제로 믿는 문장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상상 속에서만 받아들이는 허구적 참이다. 즉 잔 페리를 싫어하는 프렌드의 감정 태도는 그녀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상 속에서만 받아들이는 허구적 이유(fictitious reason)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잔 페리는 실존하는 사람이므로,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허구의 대상과 달리,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싫어함, 연민 등등의 감정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프렌드가 (4)를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다면, 즉 페리가 그녀가 싫어하는 특성—즉 전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다면, (4)에 근거한 프렌드의 태도 (3)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보고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프렌드는 진정으로 페리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4)는 그녀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상상할 뿐인 이유이기 때문에, 프렌드는 (4)에 근거한 (3)은 진정한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것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메이크-빌리브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처럼 실존하는 대상에 대한 허구적 상상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선 메이크-빌리브 태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프렌드는 이러한 ‘메이크-빌리브 분석’은 순수하게 허구적인 캐릭터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허구에 대한 우리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레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읽고 영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1) 나는 안나 까레니나를 동정한다.

또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5)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

여기서 (5)는 사실적 참이 아니라 허구적 참이다. 달리 말하면, 안나가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영희의 판단은 그녀가 믿고 있는 실재의 사실이 아니라, 단지 톨스토이 소설에 의해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즉 영희는 (5)가 실제로 참이라고 결코 믿지 않으며, 단지 실제로 참인 것처럼 메이크-빌리브할 뿐이다. 이처럼 영희의 감정 태도가 실제로는 믿지 않고 단지 그렇게 상상할 뿐인 허구적 이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서 잔 페리의 예와 마찬가지로, 영희가 안나를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동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프렌드는 주장한다. 즉 (5)와 같은 허구적 이유에 근거한 감정 태도는 진정한 동정이 아니라 단지 메이크-빌리브 동정(make-believe pity) 또는 유사 동정(quasi-pity)이라는 것이다.

이제 안나가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영희의 판단은 그녀가 믿고 있는 실재의 사실이 아니라, 단지 톨스토이의 소설에 의해 상상하도록 요구된 허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영희가 안나를 글자 그대로의 뜻에서 동정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프렌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자.

먼저 영희가 허구의 대상이 아닌 정희에 대해 동정심을 진짜로 느낀 것은 동정에 관련된 영희의 생리-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인풋(input)은 ‘정희는 그녀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영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경우를 허구의 대상인 안나 까레니나에 대한 영희의 감정 반응과 비교해 보자. 영희가 안나에 대해 단지 그런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동정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정심과 관련한 동일한 생리-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했기 때문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동정과 유사 동정 사이의 차이는 생리-심리학적 상태의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영화의 생리-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촉발시킨 인풋은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이며, 이 생각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인풋의 역할을 한 이유는 적어도 이 소설을 감상하는 맥락에서 영화가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영화가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을 사실적 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상상하도록 요구되는 명제로서 진정으로 승인함을 주목하라. 다시 말하면, 소설을 감상하는 상황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명제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생각이 동정에 관련된 영화의 생리-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 ‘안나 까레니나는 매우 불쌍한 여성이다’란 생각은 전면에 부각된데 반하여, ‘안나 까레니나는 단지 허구의 대상이다’란 믿음은 단지 배후에 암묵적으로 잠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동정에 관련된 영화의 생리-심리적 메커니즘이 촉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이 ‘정희는 연인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동정에 관련된 생리-심리적 메커니즘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 단지 이 메커니즘을 촉발시킨 인풋이 영화가 사실적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가 아니라, 단지 상상하도록 요구된 명제라는 이유만으로 영화가 느낀 감정이 진정한 동정심이 아니라 유사 동정심에 불과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영화의 생각이 소설 감상의 맥락에서 영화의 동정에 관한 메커니즘을 촉발시킨 인풋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영화가 ‘안나는 브론스키 백작과의 로맨스로 인해 지나친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을 실제 세계와 관련된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소설적 상황에 진지하게 빠져들어 있던 어느 순간 가슴

몽클한 동정심을 느꼈음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프렌드의 논거는 영희가 만나에 관해 느낀 감정이 진짜 동정심을 부정하기에 불충분한 논거이다. 물론 동일한 생리-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문제는 영희가 느낀 감정이 그녀의 상상 속에서만 받아들이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동정심이 아니라 유사 동정심이라고 보는 프렌드의 견해와 이와 달리 영희가 느낀 감정을 진짜 동정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는지 이다. 우리는 앞 장에서 찰츠가 끈끈한 녹색 괴물이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느낀 감정을 진짜 공포가 아니라 유사 공포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이와 달리 진짜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후자가 더 설득력 있음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 다섯 가지 이유는 마찬가지로 영희가 느낀 감정이 단지 유사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동정심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이유이다.

이제 다시 허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 대상에 대한 허구적 상상을 통해 촉발된 감정 태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던 잔 페리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3) 나는 잔 페리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4) 잔 페리는 전혀 농담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3)이 표현하는 프렌드의 감정 태도는 허구적 이유인 (4)에 근거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는 페리를 좋아하므로, 이 경우 (3)이 표현하는 태도는 진정한 감정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허구 대상의 경우와 달리, 실재 대상의 경우에는 상상된 상황에 기인한 감정 태도이외에 실제 믿음에 기인한 감정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위의 예처럼 그 태도가 상반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상반된 태도가 요구되는 경우, 상상적 상황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이 되면 곧장 상상적 상황에서 취했던 감정 태도를

포기하고, 실제 믿음에 의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경우 실제 감정 태도와 다른 감정 태도를 허구적 이유에 근거해 상상 속에서 취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태도와 충돌하는 태도를 상상 속에서 취하기 위해선 자신의 실제 태도가 의식화되는 것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학적 어려움이 상상적 상황에 진지하게 빠져들어 있는 동안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상적 상황에 빠져 들어 있는 동안 실제 태도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감정 태도를 갖는 것은 더더욱 충분히 가능하다.

6. 지금까지 필자는 윌튼과 프렌드의 논점들이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갖는 철학적 함축은 무엇일까? 간략히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굳이 유사 감정(quasi-emotion)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즉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실제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일상적 직관을 철학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래드퍼드 퍼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의 세 명제를 고려해 보자.

- (가) 우리는 오직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 (나) 우리는 허구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 (다) 우리는 허구의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콜린 래드포드(Radford 1975)에 의하면, 우리는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진정한 감정 반응을 한다. 예컨대, 친구

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아픈 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허구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허구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구의 캐릭터에 대해 실재 대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위 세 명제는 모두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위 세 명제는 모두 함께 참일 수 없으므로, 래드포드는 허구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월튼은 (다)를 부정한다. 월튼에 의하면, 허구의 대상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단지 유사 감정이다. 필자의 견해는 (가)를 부인함으로써 래드포드 퍼즐을 해결하는 한 가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가)를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없으므로 허구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비정합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세화 (2002), 「허구에 대한 감정과 레드포드의 퍼즐」, 『철학연구』 57집, pp. 305-319.
- 이병덕 (2006), 「허구적 이름에 대한 밀주의 이론과 추론주의 의미론」, 『철학적 분석』 13호, pp. 101-132.
- Brandom, Robert. (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Prac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Everett, Anthony, and Thomas Hofweber. (2000), *Empty names, Fiction and the Puzzles of Non-existence*. CSLI Publication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California.
- Dummett, Michael.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Second Edition. Harvard University.
- Moran, Richard. (1994), “The Expression of Feeling in Imagina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103, pp. 75-106.
- Friend, Stacie. (2000), “Real People in Unreal Contexts”, in Everett and Hofweber 2000, pp. 183-203.
- Hyslop, Alec. (1986), “Emotions and Fictional Character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4, pp. 289-297.
- Radford, Colin. (1975),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 Vol. 49, pp. 67-80.
- Sellars, Wilfrid. (1963), “Some Reflections on Language Games”, in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Routledge & Kegan Paul: 321-358.
- _____ (1980), “Inference and Meaning”, in *Pure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s: The Early Essays of Wilfrid Sellars*, edited and introduced by Jeffrey F. Sicha,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257-286.

Walton, Kendall. (1990),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s*.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97), “Spelunking, Simulation, and Slime: On Being Moved by Fiction”, in *Emotion and the Arts*, edited by Matte Hjort and Sue Laver. Oxford University Press.

Yanal, Robert. (1994), “The Paradox of Emotion and Fic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5, pp. 54-75.

Can we have genuine emotion towards a fictional object?

Byeong Deok Lee

Can we feel genuine pity for Anna Karenina? Can we have a genuine fear of a fictional monster? Kendall Walton and Stacie Friend say 'no'. Walton claims that we cannot have genuine emotion towards a fictional object because we can have genuine emotion only if we believe in the existence of the object of our emotional attitude, and also because our emotion towards a fictional object does not put pressure on our behavior in such a way that our emotion towards a factual object does. And Friend claims that one's emotion towards a fictional object cannot be genuine because it depends on a reason that one does not believe, but only imagin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ir arguments are not convincing enough to deny our ordinary intuition that we can have genuine emotion towards a fictional object.

[Subject] Esthetics, Philosophy of language

[Key Words] Fictional objects, genuine emotion, quasi-emotion, Walton, Friend